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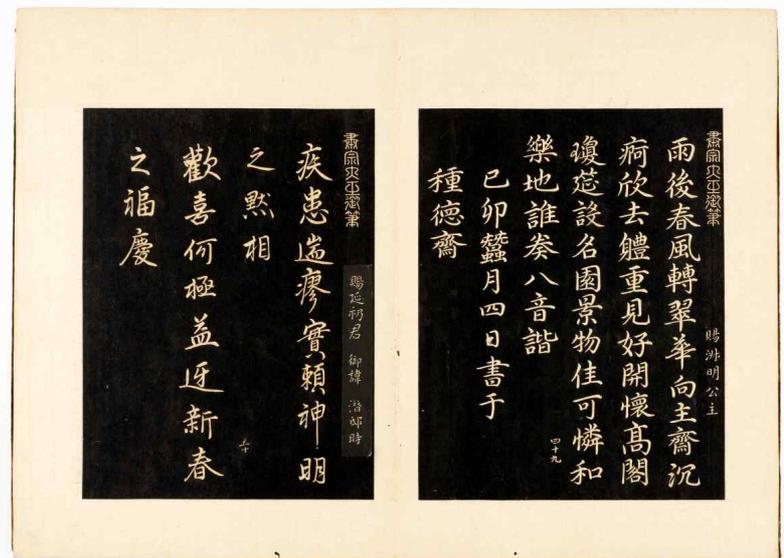
(붙임 1)

## 주요 전시유물 소개



<나전 매화, 새, 대나무 상자>(2021, 일본)

조선 후기에 제작된 나전 상자로 제작 수준이 높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국내에서 전시, 연구 등의 활용 가치가 높다.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다.



<열성어필>(2022, 미국)

조선시대 왕들의 글씨(어필)를 모아 수록한 책으로 1722년에 간행되었지만 1725년에 새로운 어필을 추가하여 묶은 드문 형태이다.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다.



<백자동채통형병>(2022, 미국)

백자 표면을 구리 안료로 장식한 병이다.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스미스(Stanley Smith, 1876-1954) 소장했던 것으로 국외 문화재의 반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.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유물이다.



<독서당계회도>(2022, 미국)

조선시대 관료들의 친목 모임을 기념하여 제작한 그림으로 참석자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. 16세기 전반의 시대양식을 보여주는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.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되는 유물이다.



<면피갑>(2018, 독일)

조선 후기 보병들이 입었던 갑옷으로 국내에 남아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희소성이 높은 유물이다. 이번에 처음으로 전시되는 유물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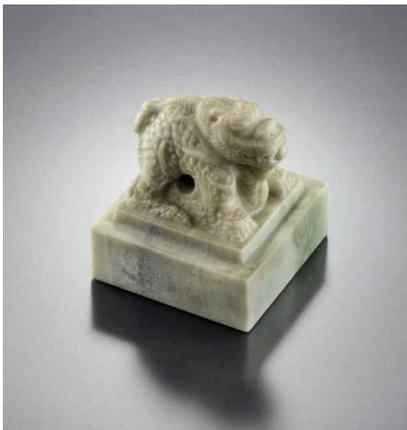
<문인석>(2019, 독일)

조선시대 사대부묘에 세워진 있던 것으로 보이는 문인석이다. 한쪽은 입을 다물고, 한쪽은 입을 벌린 채 쌍을 이루는 있는 희귀한 사례이다.



<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>(2006, 일본)

1913년 전량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다가 1923년 간토대지진으로 대부분 소실되었고 일부 남아있던 47책이 민간 차원의 활발한 반환 운동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돌아왔다.



<국새 황제지보, 유서지보, 준명지보>(미국, 2014년)

한국전쟁 때 도난당한 국새로 미국과의 수사공조를 통해 불법 반출이 확인되었고 2014년 한·미 정상회담 때 반환되었다.

황제지보: 고종이 황제국인 대한제국의 선포하면서 만든 국새

유서지보: 왕이 지방 관원에게 내린 명령서인 유서에 사용한 국새

준명지보: 세자시강원(世子侍講院, 조선시대 세자 교육 기관)의 관리를 임명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국새



<덕혜옹주 당의와 스란치마>(2015, 일본)

덕혜옹주가 어릴 때 입었던 것으로 국가의 작은 의식 때 착용하는 예복이다. 당대 최고 수준의 왕실 복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.



<호조태환원 원판>(2013, 미국)

근대적 화폐제도 도입에 따라 구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발행한 교환권의 인쇄 원판이다. 호조태환권은 실제로 유통되지는 못했지만 조선이 만든 최초의 근대적 화폐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.